

“자기주도성 발휘에 필수”… 초6·중3에 기초학력 집중교육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강화
올해부터 기초학력 미달학생 관리
초6, 담임교사와 협력 맞춤 피드백
중3, 교육청 프로그램 참여해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전환기 시기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를 운영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다층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교육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서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한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는 초등 6학년의 경우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등 3학년은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의 각 학교에서는 매 학년

마다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진단 도구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용 중인 대전교육청과 충남대 연구팀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있다. 이에 더해 학생들이 진급을 앞둔 전환기 시기

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다.

초등 6학년을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협력해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학습지원 튜터를 운영한다. 학습 공백이 확대되는 방학에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진로 탐색 등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련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청 측은 초등 6학년 단계의 방학 프로그램이 주로 중학교 진학 적응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올해 시범 운영부터는 학습 코칭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등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인 만큼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6월에서 7월 사이 진행되는 향상도검사에 미도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AI튜터링 보충학습(AI튜터링 이용 보충학습을 LMS 활용한 이수 관리) ▲중3 키다리샘 멘토링(국·영·수 중심 기초교과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집중 멘토링 실시 및 책임 지도) ▲보약캠프(자기효능감 및 진로 의식 고취를 위한 집중 캠프) ▲보호자 책임지도 프로그램(보호자가 직접 선택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법·제도가 이를 명확히 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은 공교육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수 평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14개 대학 26개 학과서 정시 지원자 ‘0명’

경북 지역서만 10개학과 달해
인문계열 16개, 자연 10개 학과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0명’인 학과가 14개 대학에서 26개를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8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종로학원은 10일 해당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분석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4개 대학의 26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2020학년도에는 단 3개 학과에서만 발생한 상황으로, 4년만에 8배를 훌쩍 넘었다.

다만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서울, 수도권, 세종 등에서는 지원자 ‘0명’ 발생 학과가 단 한 개 대학도 없었지만, 경북 지역에서 10개 학과가 발생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16개 학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 자연계열에서 10개 학과가 발생하면서 인문계열(61.5%)의 지원자 미달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A대학 항공 관련 학과 33명 모집에 지원자 0명, B대학 항공관련 학과 30명 모집에 지원자 0명, C대학 관광관련 학과 27명 모집에 지원자 0명 발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에너지관련 학과의 경우 64명 모집에 지원자 0명,

의식관련 학과 28명 모집에 지원자 0명, 건축관련 학과 19명 모집에 지원자 0명으로 드러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학들의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시 지원 기회가 3회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으로 국한해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것은 정확한 상황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사실상 선발능력을 상실한 수시·정시 속수무책 대학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예상 시간보다 상당히 빠르게 급진전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대응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발표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책 효과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산업공정 발생 가스서 CO2 분리기술 개발

상명대 이주영 학생 논문, 학술지 게재

상명대학교는 이주영(사진) 생명화학공학과 화공신소재전공 학생이 단독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화학, 분자물리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저널의 12월호에 Cover Paper로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7,7,8,8-Tetracyanoquinodimethane 물질을 이용한 CuO(산화구리)와 CO2(이산화탄소) 분리’에 대한 응용(CuO Modified by 7,7,8,8-Tetracyanoquinodimethane and Its Application to CO2 Separation)’이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대기열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연소 과정에서 CO2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포집 기술이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집은 대규모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가스에서 CO2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주영 학생은 7,7,8,8-Tetracyanoquinodimethane이란 물질을 이용해 CuO의 표면을 변형하고 CO2의 용해도를 높여 CO2 분리막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는 곧 CO2 포집의 효율성을 높인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CO2를 경감시키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인 포집 기술과 환경 문제 관련 연구에서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은 기자

국민대, 우즈베크에 융합형 IT학과 신설

타슈켄트정보통신대와 사업약정
2027년까지 500만달러 지원받아

국민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융합형 IT학과 신설한다.

국민대는 지난 12월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 취창업 연계형 비즈니스 IT 교육 역량강화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융합형 IT학과 신설 및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대의 융합형 IT학과 개설은 디지털 경제 혁신 인재 육성과 대학의 산학협력력을 통해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Tashkent Univ

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년 동안 미화 500만달러를 지원받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TUIT)에 ▲비즈니스 IT학과 신설 및 운영 ▲산학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비즈니스 IT 교수요원 양성 등을 추진해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경제를 이끌 혁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단순한 IT학과 신설을 넘어 리빙랩(living lab) 기반의 산학연계 운영체계 구축 등 지난 10여 년간 국민대가 축적해 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모델(LINC3.0) 구축의 경험을 전수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있다.

/신하은 기자

교육부-청소년정책연구원
디지털 문해교육 성과공유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 참여단 성과공유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과공유 한마당은 지난해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법을 탐구한 49개 학생 참여단(학생 동아리)의 활동 경험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참여단 가운데 가짜뉴스, 사이버 언어폭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디지털 에절 캠페인을 벌인 ‘효행금쪽이’(경기 효행초), 디지털 이해력 브레인스토밍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탐구한 ‘페스타로직’(경기 하늘빛중), 가짜뉴스에서 사실 확인(팩트체크) 중요성을 알린 ‘Fact of 23 bros’(경기 수성고) 등 3개 팀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신하은 기자

성신여대 연구팀 논문, 국제 학술지 게재

융합보안공학과 학부생 등 참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부생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인 ‘컴퓨터스 앤 일렉트릭얼 엔지니어링(Computers and Electrical Engineering, IF 4.152)’ 2023년 1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에는 이일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미래융합기술공학과 교수가 지도교수이자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미래융합기술공학과 2학년인 박나은(제1저자), 이유림, 주소영, 김소연 씨, 1학년인 김소희 씨와 융합보안공학과 4학년의 박주영, 김서이 씨가 함께 참여했다.

논문 주제는 ‘지능형 지속 위협 기반

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침입 탐지 프레임워크의 성능 평가(Performance evaluation of a fast and efficient intrusion detection framework for advanced persistent threat-based cyberattacks)’로 APT(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제시했다.

이일구 교수 연구팀(CSE Lab)은 오픈소스 도구인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과 경량 감사 데이터 수집기(Auditbeat), 마이터 어택(MITRE ATT&CK, Adversarial Tactics, Techniques & Common Knowledge)을 활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